

탄허기념박물관 명사초청 보살사상 선양법회 ⑤



불교 수행의 최종 목적은 깨달음을 얻는 것. 그렇다면 깨달은 이들은 시대와 역사를 어떻게 대하는 것일까. 불교의 현실 참여는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위로 진리를 찾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한다)' 같은 당위의 가르침 때문이 아닌, 깨달음 자체에 시대와 역사에 대한 참여가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



보살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욕심을 버리지 않는다

월정사 회주 현 해 스님, 탄허기념박물관 명사초청 보살사상 선양법회서 불교사 흐름 속 보살 조망

초기불교에서 보살사상 변천

불교가 처음으로 파가 나뉘진 때는 부처님이 열반하신지 100년 뒤입니다. 2차 결집인 비사리 결집에서 10가지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중 세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당시 스님들은 비교적 융통성이 있는 진보적인 스님들과 철저히 계율을 지켜야 한다는 보수적인 스님들로 나뉘었습니다. 250개의 계율 중 밤은 하루 한끼를 먹되 정오가 지나면 불식하는 것입니다. 진보적인 스님들은 밥을 먹다 보면 시간이 지나니 정오 태양의 그림자가 손가락 두마디 지날때까지는 밥을 먹는 것을 허락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200년 간 불교는 분파를 거듭해 20여 개 파로 나뉩니다. 그것을 아비달마 불교라고 합니다. 파가 나날 수록 자신의 파가 맞다고 주장하고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 교리가 발달합니다. 자파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 연구가 거듭됐습니다. 전문적인 논리가 발달합니다. 하지만 전문성이 너무 추구되면 대중성이 괴리됩니다. 법회에서도 전문적인 논리만을 계속 말하면 대중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대중부 계열에서 대승불교가 발전하게 됩니다.

대승불교에서 보살사상

(아함경)을 보면 부처님께서 '내가 설산에서 고행할 때 보살이었느니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이를 보면 깨침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과정을 보살이라 칭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보살에 대해 (아함경)에서는 다시 '나는 중생들을 위해 보살행을 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아함경)에서는 일반 일보살 사상입니다. 부처가 되기 위해 수행하는 과정, 중생을 위한 과정이 보살이라고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승불교가 되면 보살사상이 다 불 보살 사상으로 변화합니다. 팔만 사천 보살이 나옵니다. 이러한 보살의 용어를 분석해 봅시다. 보살이란 말 자체를 보면 보리살타, 원음으로 보디사트바(bodhisattva)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다는 깨침, 즉 불성을 얘기하고 사트바는 유정, 즉 감정이 있는 동물을 칭합니다. 이를 보면 보살은 두가지 해석

이 가능합니다. 부처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수행하는 중생이며, 감정이 있는 부처인 것입니다. 깨쳤으니 유정을 가지고 중생 곁에서 중생을 제도하는 부처입니다. 저는 젊었을때 깨우침에 대한 궁금함으로 큰 스님들을 많이 찾아 다녔습니다. 그중 궁금한 것 중 하나는 부처님은 괴로움에서 벗어난 존재인데 병이 들면 아픔이 없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몸이 아프지 않다면 돌덩어리입니까. 사람입니까. 생로병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으니 어떤 스님은 주먹을 내지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청담 스님은 부처도 네가지 괴로움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스님은

다. 아라한은 모든 번뇌에서 벗어난 자입니다. 탐진치에서 벗어난 자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사(捨)가 목적입니다. 재물도 버리고, 감정도 버리는 것입니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감정이 있어야 하는데 다 버리면 제도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보살 불교에서 목적은 보살입니다. 보살은 무엇이나. 보살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욕심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욕심이 무엇이나면 중생 속에서 생활하면서 중생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번뇌와 괴로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과 번뇌를 중생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다. 아라한은 모든 번뇌에서 벗어난 자입니다. 탐진치에서 벗어난 자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사(捨)가 목적입니다. 재물도 버리고, 감정도 버리는 것입니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감정이 있어야 하는데 다 버리면 제도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보살 불교에서 목적은 보살입니다. 보살은 무엇이나. 보살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욕심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욕심이 무엇이나면 중생 속에서 생활하면서 중생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번뇌와 괴로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과 번뇌를 중생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개관현실의 권(權)은 방편을 말하는 것으로 개관현실은 방편을 열어 진실을 나타낸다는 뜻을 지닙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회삼귀일 혹은 개삼현일이라 합니다. 천태종이나 선종, 화엄종 등은 보살·성문·연각이 방편이며 진실인 일승, 즉 불승에 들어가게 하는 징검다리 같은 것으로 이야기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삼론종에서는 일승이 방편이라 주장합니다. 부처와 중생이 따로 존재 할 수 없으며 삼승이 그대로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불교의 주류를 형성했던 천태·화엄·선종 계통에서는 삼승 방편과 일승 진실이 정설로 됐고, 후대 대부분 종파나 학자들은 이것을 추종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삼승을 돌이켜 일승으로 돌아가는 목적을 개관현실이라고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보살은 끊임없이 수행하는 중생이요 깨달았지만 정이 있는 부처가 보살

<법화경>에 나타난 보살 사상

<법화경>으로 들어가 보면 법화경의 제명은 산스크리트어로 '삿다라마 푸다리카 수트라'(Saddharma-pundarika-sutra)입니다. 이것을 분석하면 '수트라'는 경(經)이라는 뜻이고 '사드'와 '다라마'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라마'는 법(法), 혹은 가르침이라 번역합니다. '사드'는 형용사로 사용할 때와 동사로 사용할 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형용사로는 '현존'(現存)의 뜻이며 이의

그러나 보살이 중생들 가운데 뿌리를 박는다 해서 중생들의 습성을 그대로 받아들여 자신의 삶의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부처님의 이상을 망각해 실천하지 않는다면 보살의 가치는 없는 것입니다. 중생의 삶에서 나타나는 흐트러짐과 더러움, 갈등 고뇌 속에 뿌리를 박고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언뜻 향기를 풍기는 것을 처용상정(處染常淨)이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법화경>의 정신이라 할 것입니다. <법화경>의 중심사상은 크게 진리를 밝히는 것과 보살의 실천행으로 나뉩니다. 진리를 밝히는 것은 개관현실(開關顯實)과 구원실성(久遠實成)으로 나뉩니다.

또 구원실성에서 실(實)은 바로 부처를 말합니다. 즉 부처는 옛날부터 한없는 미래까지 영원히 존재함을 밝히고 있는 것이 <법화경>의 여래수랑품입니다. <법화경>은 후반부에서 두 번째 중심사상이라 할 수 있는 보살행을 특히 강조합니다. 물론 전반부에도 보살행의 실천 내용의 구절이 있지만 후반부에 아주 강조되고 있습니다. <법화경>의 중심사상을 품별로 구분해 보면 방편품·비유품·신해품 등은 개관현실을 앞서 말한 여래수랑품은 구원실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품입니다. 보살의 실천행은 법사품·법사공덕품·상불경보살품·약왕보살본사품·묘음보살품·관세음보살보문품·보현보살권발품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노덕현 기자

민음과 정직의 산실!
그곳은 동진기획 · 붓다쇼핑

www.buddhashopping.com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대량구입시 전화주십시오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번지
TEL (051) 515-2988, 555-1087, 508-9377~8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FAX (051) 508-0101
H.P 011-554-2988, 011-879-0889

◆농협: 121068-56-042256 [예금주: 강태규]

*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용품카드들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주시면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드립니다.

• 공단등(6cm) @ 2,700원(100개이상)	• 바림등(6cm) @ 2,700원(100개이상)
• 공단등(8cm) @ 3,300원(96개이상)	• 바림등(8cm) @ 3,300원(96개이상)
• 공단등(10.5cm) @ 5,500원(24개이상)	• 바림등(10.5cm) @ 5,500원(24개이상)
• 공단등(13cm) @ 12,000원(12개이상)	• 바림등(13cm) @ 12,000원(12개이상)
• 공단등(20cm) @ 35,000원(4개이상)	• 바림등(20cm) @ 35,000원(4개이상)
• 비닐만월등(특) @ 170,000원(100개)	• 칼라바림등(30cm) / 칼라공단등(30cm)
• 영가만월등(100개) @ 170,000원(1Box)	
• 연화만월등(100개) @ 240,000원(1Box)	
• 전통북등(100개) @ 300,000원(1Box)	
• 청사초롱등(100개) @ 300,000원(1Box)	
• 비단접등(10.5cm, 12cm) @ 340,000원(100개)	

방수전선간격(50구)
22cm / 25cm / 30cm / 50cm
1m / 2m *기타주문생산

안전 인증 제품

전구(5W/8W) 45,000원[국산]
1BOX: 100개
제조원: 동진전구

연등속지백색 1묵음
6cm 3,500원 / 8cm 4,000원
10.5cm 4,500원 / 12cm 6,000원
* 1묵음당 100개를 만들 수 있음

집게부착PVC등표 @20,000원 (100개)
크기: 8.5x21cm

수행자들의 정성으로 만든 자연발효식품
100% 순수 국산공으로 만들었습니다. (생산지: 경북 영주)

우리 땅에서 자란 콩으로 빚은 북에주는,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열이 배어있는 순수자연 발효식품입니다.

자연에 의존하여 만들어지는 전통 메주는 햇살과 바람의 숨결로 말리지고 다양한 미생물에 의해 숙성되는, 하늘의 기운을 머금은 자연이 만들어주는 선물입니다.

특징

- 국산콩을 가마솥에 장작불로 삶아 나무통에 한창 한창 정성으로 넣어 만든 수공메주입니다.
- 발효균을 인공적으로 주입하지 않고, 전통 방식 그대로자연발효로 띄워서 깊고 깔끔한 맛이 납니다.

서울법당: 02)742-0172 대구법당: 053)425-3063
포항금강정사: 054)261-2231 울산법당: 052)211-2161
부산법당: 051)514-3566 대전법당: 042)862-5539

금강정사 북식품